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리와 청소년의 일탈행동,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Monitoring to Deviant
Behaviors and Self-Esteem in Adolescents

나 유 미*
Rah, Yumee
임 연 진**
Lim, Yonjin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links between parental monitoring of child's daily activities, 3 sources of parents' knowledge, and children's deviant behaviors and self-esteem. Participants were 276 tenth grade boys. Children completed questionnaires about parental monitoring and their own internal adjustments and deviant behaviors. High parental control was linked to less deviant behavior in children regardless of children's feelings of being controlled.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al control and children's feelings of being controlled was moderated by children's depression. Parental control was not related to children's depression and self-esteem, and further, children's feelings of being controlled were not related to self-esteem after controlling for depres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parental control efforts are an effective way to prevent children's deviant behaviors.

Key Words : 청소년(adolescents), 부모의 관리(parental monitoring), 일탈행동(deviant behaviors), 우울(depression), 자아존중감(self-esteem)

※ 접수 2003년 2월 28일, 채택 2003년 4월 18일

* 교신저자 :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가족전공 시간강사, E-mail : yumeerah@hanmail.net

** 동서울대학 아동보육과 전임강사

I. 서론

부모들은 청소년기 자녀의 일탈을 예방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녀들의 일상 생활을 관리하거나 감독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생활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자녀들이 일탈행동을 더 많이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연구에서는 (Crouter, MacDermid, McHale, & Perry-Jenkins, 1990), 부모가 자녀의 일상활동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경우에 자녀의 학업성취수준이 낮았고 학업에 대한 자아지각도 부정적이었으며, 특히 남아들은 문제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했다. 청소년기 자녀의 경우에도 부모의 관심과 자녀들의 학업성취 간에는 관련이 있었다 (Keith, 1991; Otto & Atkinson, 1997). 스웨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Kerr & Stattin, 2000), 자녀의 생활에 대해 부모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와 그들의 청소년 자녀들의 학업상의 문제, 비행, 우울,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 전반적인 적응문제 간에는 서로 관련되어 있었다. 많은 연구자들이 자녀의 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여 정도와 자녀의 발달은 서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특히 초등학교 수준의 자녀들의 학업 성취와 관련된 것이었다(Keith, 1991).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청소년기가 되면 이러한 관계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청소년기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잠재적으로 자녀들의 일탈을 방임하는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알고 있다면 이것 또한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에 해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자녀 생활에 대한 부모

의 파악정도가 청소년 자녀들의 내면적, 외현적 문제 행동과 관련된다고 보고하고 있을지라도, 그러한 관계 속에 작용하는 부모의 관리 노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중재 가능한 요인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Kerr과 Stattin (2000)의 연구를 중심으로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의 생활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는지, 부모들의 관리 노력이 보이는 효과가 어떠한지를 알아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부모가 자녀의 생활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은 상호 교류과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자녀와의 자연스런 대화 과정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의 일상생활을 자발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알기도 하며, 부모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탐문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일상의 규칙을 만들어 따르게 함으로써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로들 중에서 자녀의 자발적 보고가 아닌, 부모들이 자녀의 생활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울이는 노력을 감독이나 관리라고 볼 수 있다. 자녀의 일상적인 활동과 친구관계, 활동 장소 등에 대해 부모가 의도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청소년기 자녀의 문제 행동을 예방해주고 주위 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키며 위험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일상생활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와 그 파악 방법이 자녀의 일탈행동정도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스웨덴의 14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Kerr과 Stattin(2000)의 연구에서, 부모가 자녀의

활동을 더 많이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일탈행동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것은 부모의 의도적인 질문이나 통제와 관련되기보다는 자녀들이 스스로 부모에게 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임을 보고했다. 게다가 부모들이 자녀들의 생활을 통제하는 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로부터 통제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만들어 자녀의 일탈행동을 예방하는데 기대보다 효과가 덜 하며, 오히려 통제받는 느낌을 유발시켜 이것이 그들 자신의 내면적 적응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고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나유미와 임연진, 2002),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부모가 알게되는 것은 중학교 저학년생의 경우에는 자녀의 자발적 보고와 부모의 요청에 의해서 알게되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부모가 물어봄으로써 알게되는 것보다는 자녀 스스로의 보고에 의해서거나 규율을 정해놓고 따르게 하는 식의 통제에 의해 얻은 결과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부모들이 자녀의 생활을 알게되는 데에는 자녀의 자발적인 보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부모의 자녀 생활 파악 정도가 자녀의 보고에 의한 결과이며 이로써 부모가 자녀의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자녀의 일탈행동을 줄여준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자녀 스스로 자신의 생활에 대해 부모에게 보고를 잘 하는 청소년들은 일탈행동수준이 낮은 경우일 가능성이 많으며, 자발적인 보고가 많을수록 자신의 일탈행동이 줄어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어떠한 인과관계를 상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의 자발적 보고보다는 부모의 적극적인 관리 노력이 자녀의 일탈행동과 관련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실용적인 목적에서 더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부모의 통제로 인

해 자녀에게 유발되는 통제감은 자녀의 일탈행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 통제받는 느낌은 자녀가 느끼는 우울이나 자아존중감 등의 내면적 적응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면 실제로 그들의 일탈행동을 예방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부모의 통제에 대해 통제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라면 그것은 일탈행동을 예방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발심에 의한 일탈행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 게다가 자녀들이 통제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 내면적으로는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들에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통제받는다는 느낌을 갖고 있을 때는 자녀들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했다(Seligman, 1991; Kerr & Stattin, 2000). 즉, 자녀가 통제감을 느끼는 경우에는 부모의 통제가 자녀의 일탈행동을 예방하는 정적 효과를 감소시켰으며 자아존중감도 저하시켜 우울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이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 자녀에 대한 양육방식과 자녀의 성격 특성의 관계에 대해 제시한 Baumrind(1991)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부모들의 통제는 다소 독재적으로 보이는 양육 방식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들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자녀 관계가 서양처럼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것은 아니며, 전통적으로 부모들은 자녀를 감독하고 이끌어가는 훈육자의 모습이 강조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미덕으로 받아들여진다. 부모 역할에 대한 이런 관점은 우리 문화에서 자녀들에게도 부모의 통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끔 한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부모의 통제에 대해 통제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더라도 이것

이 행동의 한계를 정해줄 뿐 정신적으로 무력감을 주는 것이 아니며 일탈행동을 예방하는 긍정적 효과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의 통제가 통제감을 유발시켜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손상시키거나 우울하게 만들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의 규칙을 통해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정신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심리적 통제와는 구별되기 때문이다(Barber, Olsen, & Shagle, 1994). 물론 과도한 행동상의 통제는 정신적 통제와 연결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수준의 행동상의 규제에 대해서 자녀들이 자율성을 침해당하는 정신적 통제감으로 느낀다면, 이것은 자녀 자체의 특성에 기인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울한 아이들이 부모의 통제에 대해 통제감을 더 많이 느낄 수도 있다. 우울은 현실을 부정적으로 왜곡하여 지각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Beck, 1961).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우울한 특성이 부모의 통제에 대해 자녀들이 통제감을 느끼도록 촉매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그것은 자녀의 우울 수준에 따라 부모의 통제에 대해 자녀가 통제받는 느낌의 정도가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절차에 의해 검증될 수 있

다. 이밖에 우울과 자아존중감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우울에 의한 효과를 넘어서서 자녀가 느끼는 통제감이 자아존중감과 관련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통제감이 자아존중감을 상실시키는지 알아보았다. 국내에서도 어머니의 감독과 감독방법이 청소년의 외현화·내면화 행동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박진경·도현심, 2001)가 있으나, 그 관계 속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의 몇 가지 연구 문제가 검증되었다.

1)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파악 정도와 자녀의 일탈행동 수준간에는 관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자녀 관리 방법이 일탈행동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2) 부모의 통제와 자녀의 일탈행동간의 관계는 자녀의 통제감에 의해 중재되는가?

3) 부모의 통제에 대해 자녀들이 느끼는 통제감은 자녀의 우울 수준에 의해 중재되는가?

4) 자녀가 느끼는 통제감은 자아존중감과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경기도 신도시에 위치한 한 남자 고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 전체 8개 반¹⁾의 276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 중 부모 또는 부모 대신 친척, 조부모, 형제 등의보호자와 함께 살고 있는 보호자에 대한 자료에서 결측치가

없는 226명이 본 연구의 실제 분석대상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36세~52세로 평균과 중앙치가 각각 42세였고, 아버지의 연령은 38세~56세이고 평균과 중앙치가 45세였다. 기타 응답자 두 명의 연령은 21세와 22세였다. 어머니 응답자의 학력은 고졸이 59.4%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나 대학중퇴, 대졸, 대학원졸을 합쳐서 13.1%, 중졸이 21.9%, 국졸이 5.6%였다. 아버지 응답자의 학력은 고졸이 52.5%, 전문대졸 이상이 31.6%, 중

1) 이 중 무작위로 선정된 2개 반은 나유미와 임연진(2002)의 연구대상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었다.

율이 12.9%, 국졸은 3%였다. 그 외 응답자의 경우 고졸과 대졸이 각 1명씩이었다. 어머니 응답자의 46%가 전업주부였으며, 아버지 응답자의 62%가 자영업 또는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구학적 분포의 특성은 다른 청소년 연구대상의 분포와 유사한 것이었다.

2. 연구도구

일탈행동, 자아존중감, 우울 척도 외에는 모두 Kerr & Stattin(2000)의 질문지를 번안하고 일부 수정한 것이었다.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파악정도, 파악 방법, 자녀가 느끼는 통제감은 각 척도에 포함된 항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또는 자주 그렇다'까지 5점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한 척도에 포함된 항목에 대한 평균을 내어 그 척도에 대한 점수로 산출하였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척도의 특성을 더 많이 나타냄을 의미한다.

1)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도

자녀가 자유시간에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용돈 관리나 학교 공부 등에 관한 부모의 파악정도를 알아보는 9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가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녀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또는 자주 그렇다'까지 1점에서 5점까지의 점수가 부여된다. 신뢰도 $\alpha=.71$ 이었다.

2)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파악하게 되는 세 가지 방법

(1) 자녀 스스로 말한다. (자발적 보고)

학교생활이나 자유시간의 활동 등에 관해 집

에 가서 스스로 말하는 편인지, 숨기는 편인지를 알아보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또는 자주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신뢰도는 $\alpha=.68$ 이었다.

(2) 부모가 물어본다. (부모의 질문)

자녀가 자유시간 활동을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혹은 학교 생활에 대해 알아내기 위해 부모가 자녀에게 물어보거나 자녀의 친구들을 통해 알아내려는 것으로서, 5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에 대한 응답방식은 '자녀 스스로 말한다' 척도와 동일하다. 신뢰도 α 는 .68이었다.

(3) 부모의 통제

자유시간의 활동이나 친구와의 만남 등에 관해 부모의 허락을 받거나 갔다와서 부모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등의 규칙을 설정해 놓은 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뢰도는 $\alpha=.67$ 이었다.

3) 자녀가 느끼는 통제감

자녀가 부모로부터 얼마나 통제받고 있다고 느끼는지를 알아보는 척도이다. 이 척도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항의 예를 들면 '내 부모님은 내 자유시간에 하는 일에 지나치게 간섭한다'이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또는 자주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느끼는 통제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녀용 질문지만 있고 신뢰도는 $\alpha=.75$ 였다.

4) 일탈행동

일탈행동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는 이주영

(2000)이 사용한 ‘숨은 비행 척도(Latent Delinquency Questionnaire : LDQ)’를 사용하였다. 총 2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무단 결석을 해 본 적이 있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없다’, ‘한두번 있다’, ‘서너번 있다’, ‘대여섯번 있다’, ‘많다’의 빈도로 구분하고, ‘없다’에 0점을, ‘많다’에 4점을 주도록 하여 총점의 범위가 0점에서 100점이 되도록 하였다.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Cronbach α 는 .91이었다.

5) 자아존중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Rosenberg(1977)의 자아 존중감 척도에서 10문항이 사용되었다. 문항의 예를 들면 ‘대체로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나한테는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된다’이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또는 자주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의 내용에 따라 역채점하여, 자아존중감 점수는 10개 문항에 대한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alpha = .84$ 였다.

6) 우울

우울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인들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 정신보건 연구원에서 제작한 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오경자와 김은정(1998)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을 그대로 실시하였다. 우울한 기분, 무가치감, 절망감, 식욕상실, 수면장애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형 척도로서 각 문항은 0점에서 3점으로 채점되고,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6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alpha = .88$ 이었다.

3. 연구 절차

해당 학년도의 겨울방학이 끝난 직후에 조사가 실시되었다. 질문지는 각 학급에서 담임교사가 배부하고 각자 질문지를 봉한 다음, 반대표가 회수하여 연구자에게 전달되도록 했으며, 회수율은 100%였다.

III. 결과 및 해석

자녀 생활에 대한 부모의 파악 정도와 그 파악 방법, 자녀의 일탈행동 및 우울,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는 <표 1>과 같다. 부모가 자녀의 생활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와 자녀들의 일탈행동 간에는 유의한 부적관계가 있었으며, 부모의 통제나 질문, 자녀의 보고와 부모의 파악정도 간에는 정적 관계가 있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느끼

는 통제감과 그들의 내면적인 적응, 즉 자아존중감 및 우울 수준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즉 자아존중감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우울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자녀의 내면적 적응문제와 그들의 일탈행동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표 1〉 독립변인들과 종속변인들간의 상관관계(N = 226)

	1	2-1	2-2	2-3	3	4-1	4-2	5
1. 부모의 파악 정도	-							
2. 파악 방법								
2-1. 부모의 통제	.47***	-						
2-2. 부모의 질문	.43***	.57***	-					
2-3. 자녀의 보고	.55***	.28***	.37***	-				
3. 자녀의 통제감	.12	.33***	.20***	-.12	-			
4. 내면적 적응문제								
4-1. 자아존중감	.28***	.03	.04	.23***	-.19**	-		
4-2. 우울	-.19**	.02	.04	-.14*	.32***	-.59***	-	
5. 일탈 행동	-.22***	-.32***	-.12	-.31***	.01	-.02	.10	-

*p<.05 **p<.01 ***p<.001

1. 부모의 자녀 생활 파악 정도, 파악 방법과 자녀의 일탈행동간의 관계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을수록 자녀의 일탈행동 수준은 낮았으므로, 부모가 자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 각각이 부모의 자녀 생활 파악 정도와 자녀의 일탈행동 수준간의 관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의 1단계에 부모의 파악정도를 넣고 2단계에 부모의 파악방법 세 가지 중 한 가지씩을 넣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들어간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이 이후 단계에서 첨가되는 다른 독립변인에 의해 이전 설명력이 유의하게 감소된다면 이후에 투입된 독립변인은 앞의 독립변인의 주요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나유미와 임연진, 2002; Frome & Eccles, 1998).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귀분석의 첫 단계를 보면 자녀의 생활에 대해 부모가 더 많이 파악할수록 자녀의 일탈행동 수준은 더 낮았다. 분석의 두 번째 단계에서 ‘부모의 통제’와 ‘자녀 스스로의 보고’를 각각 투입하였을 때, 부모의 파악정도의 설명력이 첫 단계에서는 유의

〈표 2〉 자녀의 ‘일탈행동’과 부모의 ‘파악 정도’의 관계에 있어서 세 가지 ‘파악 방법’의 기여도 검증 : 위계적 회귀분석

	B	CI ^a	β^c	sr ²	Full model R ²
1단계 : 파악정도	-4.39***	-6.91 ~ -1.88	-.22	.050	
2단계 : 파악정도	(-1.83) ^b		-.09	.006	.11***
부모의 통제	-3.75***		-.28	.061	
2단계 : 파악정도	-4.20**		-.21	.038	.05**
부모의 질문	-.37		-.02	.000	
2단계 : 파악정도	(-1.53)		-.08	.004	.10***
자녀의 보고	-4.81***		-.27	.049	

a. B값의 95% 신뢰구간.

b. ()로 표시된 B값은 함께 투입된 독립변인에 의해 ‘부모의 파악정도’ 기울기가 유의하게 줄어든 경우를 의미함.

c. β 의 유의도는 B의 유의도와 동일하며, sr²은 준여과상관자승값으로서, 종속변인에 대해 해당 독립변인이 고유하게 설명하는 변량 비율을 의미함.

p<.01 *p<.001

하던 것이 유의하지 않은 상태로 변화되었다. 반면에 ‘부모가 물어보는’ 방법의 투입은 자녀의 일탈행동에 대한 ‘부모의 파악정도’의 설명력에 대해 유의한 변화를 야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줄이는 변인으로서 자녀 생활에 대한 부모의 ‘파악 정도’가

보이는 효과의 많은 부분은 ‘부모의 통제’와 ‘자녀 스스로 보고하는’ 방법을 통해 얻어지는 것임을 보여준다. 반면 부모가 ‘물어보는’ 방법은 부모의 ‘파악 정도’를 구성하는데 그다지 기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줄이기 위해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 ‘부모의 질문’은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임을 의미한다.

부모가 자녀의 생활에 대해 파악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이 자녀의 일탈행동을 설명하는 데 더 많이 기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통제와 자녀 스스로의 보고를 독립변인으로 하여²⁾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통제($\beta = -.32^{***}$, $sr^2 = .104$)는 자녀의 일탈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자녀 스스로의 보고($\beta = -.24^{***}$, $sr^2 = .051$)보다 더 큰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다. 부모가 자녀의 생활에 대해 자녀의 자발적 보고나 부모의 통제, 부모의 질문 등의 방법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그것이 자녀들의 일탈행동 정도와 관련되어 있으나,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보고보다는 부모의 통제가 자녀의 일탈행동 정도를 더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부모의 통제와 자녀의 일탈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통제감의 중재 효과

<표 1>에서 보듯이, 청소년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통제받는다는 느낌을

2) 부모의 파악 방법 중 부모 통제와 부모의 질문은 상관성이 높고(<표 1>참조), 나유미와 임연진(2002)에서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중학생과는 달리 자녀 스스로의 보고는 부모가 물어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며, 부모가 물어보는 것은 오히려 부모의 통제에 포함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모 파악의 세 가지 방법 중 부모의 질문은 독립변인에서 제외하였다.

를 더 많이 갖고 있었다. 또한 부모로부터 통제를 많이 받고 있다고 느끼는 자녀들일수록 그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낮았으며 우울 수준은 높았다.

부모의 통제가 자녀로 하여금 통제감을 유발시킴으로써 일탈행동에 대한 조절 효과를 감소시키는지 알아보고자, 자녀의 통제감이 부모의 통제와 자녀의 일탈행동간의 관계를 중재하는지를 검증하는 분석을 시도하였다. 자녀의 일탈행동에 대해 부모의 통제와 자녀의 통제감 간에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이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위계적 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의 첫 번째 단계에 부모의 통제와 자녀의 통제감을 넣어 두 변인의 주효과를 통제 한 상태에서, 분석의 두 번째 단계에 부모 통제와 자녀 통제감의 상호작용 항을 넣어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³⁾.

<표 3>에서 보듯이, 자녀의 일탈행동에 대해 부모의 통제와 자녀의 통제감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 이는 자녀의 통제감이 부모의 통제와 자녀의 일탈행동간의 관계에 대해 중재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자녀가 부모의 통제로 인해 통제받는 느낌을 많이 받은 적게 받은 여전히 부모의 통제는 자녀의 일탈행동을 억제하는데 비슷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3. 부모의 통제와 자녀의 통제감 간의 관계에 대한 우울의 중재 효과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통제에 대해서 통제감을 느끼는 것은 부모의 통제정도와 청소년

3) 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변인을 centering하였고, centering된 변인들의 상적을 만들어 상호작용값으로 사용하였다(박광배,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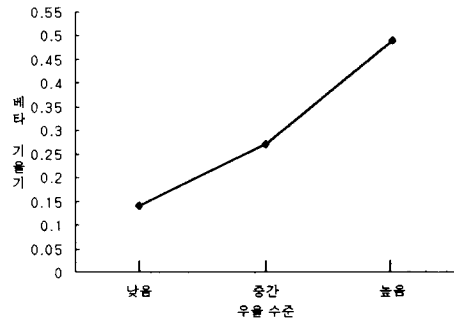
<표 3> 일탈행동과 자녀의 통제감에 대한 독립변수들 간의 상호작용효과

종속변인	단계	투입된 독립변인	β^a	sr^2	R^2
일탈행동	1	부모의 통제 자녀의 통제감	-.37*** .13	.119 .015	.12***
	2	부모의 통제 × 자녀의 통제감	-.02	.000	
자녀의 통제감	1	부모의 통제 자녀의 우울	.32*** .31***	.105 .095	.24***
	2	부모의 통제 × 자녀의 우울	.19**	.034	

a. β 값은 각 단계 내에서 산출된 것임.

p<.01 *p<.001

자신의 우울 상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표 1>의 상관분석 참조), 부모의 통제가 자녀로 하여금 통제받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데에 자녀 자신의 우울수준이 중재효과를 보이는지 분석했다. <표 3>과 같이, 부모의 통제와 자녀의 우울에 따른 주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그 두 변인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이는 자녀의 우울 수준에 따라 부모의 통제와 자녀의 통제감의 관계는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구체적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백분위를 기준으로 자녀의 우울 수준을 세 집단(우울 수준이 낮은 집단, 중간 집단, 높은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부모의 통제가 자녀의 통제감을 설명하는 정도를 회귀분석하였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우울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부모의 통제와 자녀의 통제감 간에 유의한 상관이 없었고($\beta=.14$ n.s., $n=72$), 중간집단($\beta=.27^*$, $n=79$)과 높은 집단($\beta=.49^*$, $n=75$)에서는 부모의 통제와 자녀의 통제감 간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우울한 자녀일수록 부모의 통제로부터 통제받는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는다고 볼 수 있으며, 우울하지 않은 자녀들은 부모가 통제를 하더라도 그다지 통제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우울 수준에 따른, 자녀의 통제감에 대한 부모 통제의 설명력(β 계수)의 변화

4. 자녀의 통제감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통제받는다라는 느낌과 자아존중감 간에는 상관이 있지만(<표 1>참조) 자녀의 통제감이 청소년 자신의 우울함과 상관이 있고 우울함과 자아존중감 간에도 상관이 높으므로 이 두 변인의 공유변량을 배제한 상태에서 통제감이 자존감을 설명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독립변인을 동시에 투입하는 표준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녀의 통제감($\beta=-.00$ n.s., $sr^2=.000$)은 그들 자신의 우울($\beta=-.59^{***}$, $sr^2=.313$)에 의한 효과를 배제한 상태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설명하지 못했다.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리 노력과 청소년의 일탈행동간의 관계를 탐색해보고,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자녀의 내면적인 문제와 관련되는지 알아 보았다. 몇 가지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연구(Kerr & Stattin, 2000)를 통해 예견되었듯이, 부모가 자녀의 일상 생활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을수록 그들의 자녀가 일탈 행동을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들의 생활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주로 자녀의 자발적 보고에 의해서 알게 된 것들이었다. 이것은 자녀의 일탈행동을 막기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간접적이고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는 것이다. 즉,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부모와 공유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생활에 대해 부모에게 말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태도와 특성이 중요하다. 부모가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수용적이고 온정적일 때 자녀가 스스로 자기 생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개방적인 가족 분위기를 만들어야 자녀가 자신의 일상생활 경험을 부모와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볼 때, 통제는 일탈행동을 예방해주는 적절한 방법이 되고 있었다. 부모 쪽에서 행하는 적극적인 관리 방법으로서 일상적인 규칙을 정해놓고 통제를 많이 할수록 자녀의 일탈행동은 적었다. 반면, 부모가 자녀의 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자녀에게 물어보는 것은 자녀의 일탈행동을 예방하는 데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Kerr과 Stattin(2000)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자발적인 보고를 통해서 부모가 자녀의 생활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 자녀의 일탈행동 수준이 낮았고, 부모의 통제는 자녀의 일탈행동을 감소시켜주는 데 크게 기여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상치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차이는 Kerr과 Stattin(2000)의 연구가 실시된 스웨덴과 우리의 문화적인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정 내에서 부모의 권위가 인정되고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일부로 생각하고 구속하는 것이 어느 정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므로 부모가 규율을 세워 자녀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자녀로 하여금 반발심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분명한 것은 부모가 어떤 식으로든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이 자녀의 일탈행동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좋아서 자녀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부모에게 보고하는 것은 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거나 부모로 하여금 이후에 통제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녀의 일탈행동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생활을 캐묻는 것보다는 미리 부모가 규율을 정해놓고 그것에 따르게 하는 통제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다. 더욱이, 부모가 자녀를 많이 통제할수록 자녀는 통제되고 있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지만, 그것이 Kerr과 Stattin(2000)의 연구에서처럼 자녀가 느끼는 통제감이 일탈행동을 예방하는 효과를 억제하지는 않았다. 다만 자녀의 통제감은 그들의 우울과 관련되어 있었지만 통제감이 우울을 일으킨다기보다는 우울한 성향 때문에 통제감이 발

생된다고 말할 수 있다. 게다가 우울과 자존감 간의 상관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자녀가 느끼는 통제감 수준과 자아존중감간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함이 자존감을 낮추거나 자존감이 낮으면 우울해지는 것이지 자녀의 통제감 때문에 이러한 내면적인 문제가 유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나유미와 임연진의 연구(2002)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통제받는 것에 통제감을 느끼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자녀의 지각과 관련이 있었다. 부모와의 관계는 자녀의 우울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우울 수준은 자녀의 통제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통제감이 원인이 되어 우울해질 수 있다는 것은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통제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자녀들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Kerr & Stattin, 2000; Seligman, 1991)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는, 부모의 통제가 자녀로 하여금 통제감을 유발하게 되면 이차적으로 자존감 저하와 우울같은 내면적 적응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제안들을 뒷받침할 근거는 없으며, 단지 우울 성향에 따라 자녀가 부모의 통제로부터 느끼는 통제감이 다르다는 사실만을 확신할 수 있다. 결국, 본 연구의 결과를 참조할 때, 부모의 통제는 청소년의 별다른 내면적 문제를 유발시키지 않

면서도 청소년의 일탈 행동같은 외현적 문제 예방에 유용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많이 아는 것 이외에 부모가 어떤 과정을 통해 자녀에 대해 알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녀의 일탈 행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자녀의 일탈행동을 예방하는 데 있어 부모의 관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았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알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 중 자녀의 행동에 대한 통제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으며, 규칙을 통해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서구에서 행해진 선행연구에서처럼 부작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검증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을 지적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여학생도 포함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으며, 연구 결과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를 실시해야 좀 더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부모의 통제를 심리적 통제와 행동 통제로 구분하지 않고 측정하였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통제를 구분하여 각각의 통제가 청소년의 일탈과 내면적 적응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나유미, 임연진(2002). 청소년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파악 정도와 관리 노력 : 학년에 따른 변화. *아동학회지*, 23(4), 89-104.
- 박광배(1999). *변량분석과 회귀분석*. 서울 : 학지사.
- 박진경, 도현심(2001). 어머니의 감독(monitoring) 및 감독방법이 청소년의 외현화·내면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12), 129-140.
- 오경자, 김은정(1998). 기혼여성의 우울증상과 심리적

- 특성 - 3개월간 추적연구. *성곡논집*.
- 이주영(2000). 우울한 비행 청소년 집단의 사회정보처리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천희영, 김미혜, 옥경희(2002). 어머니의 자녀 감독지식과 근원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3(3), 171-186.
- Barber, B. K., Olsen, J. E., & Shagle, S. C.(199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 1120-1136.
- Baumrind, D.(1991). Effective parenting during the early adolescent transition. In P. A. Cowan & E. M. Hetherington (Eds.), *Advances in family research* (Vol. 2). Hillsdale, NJ : Erlbaum.
- Beck, A. T.(1961). *Depression : Causes and treatment*. Philadelphia : Univ. of Pennsylvania Press.
- Crouter, A. C., MacDermid, S. M., McHale, S. M., & Perry-Jenkins, M.(1990). Parental monitoring and perceptions of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and conduct in dual- and single-earner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649-657.
- Keith, T. A.(1991). Parental involvement and achievement in high school. In S. B. Silvern, *Advanced in reading/language research* (Vol. 5, pp.125-141). Greenwich, CT : JAI Press.
- Kerr, M., & Stattin, H.(2000). What parents know, how they know it, and several forms of adolescent adjustment : Further support for a reinterpretation of monito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6, 366-380.
- Otto, L. B., & Atkinson, M. P.(1997). Parental involvement and adolescent developmen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 68-89.
- Rosenberg, M.(1977).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Seligman, M. E. P.(1991). *Learned optimism*. New York : Knopf.